



韓·美 글로벌 빅테크 1390조 AI 협력 시동

AI공급망 구축 본격화

삼성전자와 SK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엔트로픽 등 글로벌 빅테크와 총 9500억달러(약 139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협력에 나선다. AI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 AI 팩토리, 소비자 AI까지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글로벌 AI 밸류체인 구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5일 일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국내 기업들과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AI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및 전략적 협력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AI 생산기지이자 핵심 공급망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4면>

삼성전자-브로드컴, 292조 협력
삼성SDS-엔트로픽, 파트너십 체결
SK-엔비디아 731조 AI인프라 구축
네이버-엔비디아 AI 팩토리 확대
현대차-엔비디아 피지컬AI 협력

가장 큰 규모의 협력은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오는 2030년까지 총 2000억달러(약 292조원) 규모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양사는 AI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메모리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2나노미터(nm) 이하 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활용한 AI 반도체 생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 단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차세대 AI 반도체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삼성SDS도 생성형 AI 기업 엔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AI사업 확대를 위해 공동 마케팅과 기술검증(PoC), 응용형 AI 엔지니어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트로경제신문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3주간 (7월 27일~8월 14일) 지면을 감면 합니다.

지면은 줄어도 선택과 집중으로 생산한 다양한 뉴스를 인터넷 메트로신문(metroseoul.c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합니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5000억달러(약 731조원) 이상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협력에 나선다. 양사는 국내 27기가와트(GW) 규모 AI 클라우드와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고,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SK하이닉스의 HBM4가 적용된 차세대 AI 컴퓨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첫 번째 AI 팩토리는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소비자 AI, 피지컬 AI, 에이전트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컴퓨팅 수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엔트로픽과는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및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도 AI 데이터센터용 서버 메모리 공급 협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네이버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낸다. 엔비디아와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의 투자 및 지원을 바탕으로 세종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AI 팩토리 구축 규모를 기존보다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1GW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와 오픈 모델,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도 엔비디아와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 구축, 웨이모와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 등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새만금 AI 밸리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AI 반도체 공급을 넘어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로봇까지 AI 산업 전반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협력은 국내 AI 반도체 산업에 분명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제 성과는 협약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규모 투자와 협력을 발표한 사례 가운데 계획대로 추진된 경우도 있지만, 흐지부지된 사례도 적지 않았던 만큼 향후 투자 집행과 정부의 인프라·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협력에 나선 기업들이 GPU와 AI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메모리를 넘어 AI 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열린 글로벌 AI 리더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 회장, 김용범 정책실장,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 대통령, 흑 탄 브로드컴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뉴시스

李 대통령 “한·미, 다음 세대의 삼성 만들어 낼 수 있어”

美 실리콘밸리서 VC 만나
“기술·스타트업 등 협력지평 확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자(VC)를 향해 “한미의 강점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과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이들 벤처투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미 혁신 생태계 간 전략적 협업을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밋업'에 참석해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제너럴 캐탈리스트, 세쿼이아 캐피탈,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대형 벤처캐피탈 6개사가 참석했다. 글로벌 투자사들은 일제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의 스타트업이 미국의 자본과 시장을 만나고, 미국의 투자자와 혁신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술, 제조, 인재 생태계와 연결될 때 양국은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 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기술에만 있지 않다. 빠른 실행력과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 기반,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인재,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민의 자력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metro

M-커버스토리

월급 383만원 중 현금사용 32만원 불과

‘현금없는 사회’ 성큼

‘현금 승차 불가 버스’ 도입하고
프랜차이즈들도 현금사용 축소

현금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휴대하기 쉬운 카드나 별도의 결제수단 없이도 휴대전화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가 보편화되면서다.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버스 승차 시 현금 사용이 어려워졌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카드나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에 중점을 두고 현금 사용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도 빠르게 줄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6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국민이 한 달 동안 활용한 현금은 평균 3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의 80만8000원과 비교해 10년 만에 약 40% 수준으로 줄었다.

소득 증가분을 반영한 현금 사용률은 더 빠르게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383만4000원인데, 2015년의 274만원과 비교해 약 40%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 대비 현금 지출은 29.6%에서 8.4%로 줄었는데, 소득에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약 72% 가량 급감한 셈이다.

현금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카드·

간편결제 앱 등 ‘비현금지급수단’의 사용이 증가해서다. 휴대하기 쉬운 카드나 휴대전화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간편결제가 보급되면서, 휴대의 불편함이 크고 분실의 위험성도 존재하는 현금을 사용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

현금 사용률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현금 없는 사회’도 부쩍 다가왔다.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4개 광역시는 버스 승차 시 현금 사용이 불가한 ‘현금 승차 불가 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전국의 시급 지자체에서도 같은 제도를 빠르게 도입 및 확대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李 지시에 ‘공직 감사’ 대폭 강화…28개 부처 63명 증원 /사진 뉴시스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집단 가입” 정황 포착…수사망 확대

▲국힘 “與,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규명 위한 野 추천 특검 발의해야”
▲국힘, 최고위서 ‘권영진 먹살’ 후속조치 논의…윤리위도 예정

▲원희룡, 출국금지 해제에 “특검 1년 넘게 기본권 제한한 이유 설명하라”
▲조국혁신당 신장식, 노회찬 묘역 참배…“뿌리튼튼한 자강의 길 걷겠다”